



眞理 正義
自我 進就

濟大新 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梁京柱
부주 간 高榮哲 편집장 朴炳春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54-2278-9 / FAX 56-2204
인쇄: 한라일보 사

제 501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4년 5월 10일 화요일

1

교육대학원장 새로 임명 신임에 고명규교수



고명규(사회교육과)교수가 지난 5월10일 양순필(국어교육과)교수의 후임으로 제8대 교육대학원장에 임명됐다.

신임 고명규 교육대학원장의 임기는 94년 5월10일부터 96년 5월 9일까지 2년간이며 주요약력은 다음과 같다.

△39년 일본생 △62년 성균관대학교 졸업 △77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91년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취득 △68년 제주대학교 전임강사 △70년~76년 학생지도연구소 상임연구원 △73년 조교수 △80년 부교수 △81년 교육대학원 교무과장 △86년 교수 △90년 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원 연수원장 △93년 대학평의원회 위원.

각단체 학장기쟁탈

체육대회 일정 확정

'94학장기쟁탈 단과대 체육대회가 지난 9일 자연대를 시작으로 대운동장과 체육관 등지에서 열리고 있다.

경기종목은 축구·배구·농구·발아구·씨름 등 각 단과마다 종목별 달리하여 실시되는데, 단과별 체육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9~10일 자연대 △11~12일 공과대 △13~14일 농과대 △16~17일 경상대 △19~20일 해양대·법정대 △20~21일 인문대 △21~22일 야간강좌부.

95학년도 대학입시 기본방침 발표 내신 40%·수능30%·본고사30% 반영

본고사과목, 인문-‘국·영’ 자연-‘국·수Ⅱ’로 확정

우리대학은 95학년도 신입생 선별고사를 내년 1월13일 실시하고 내신성적 40%, 수능능력시험성적 30%(사범계 25%), 대학별고사 30%(사범계 25%)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95학년도 대학입시 기본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4월18일 열린 학무회의에서 확정된 95학년도 입시요강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올해부터 새롭게 대학별고사(본고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인문계열은 국어와 영어, 자연계열은 국어와 수학Ⅱ를 본고사과목으로 확정했다. 예체능계열은 작문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내신성적 40%, 수능능력시험성적 30%, 실기고사 30%씩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체근무자 특별전형은 야간강좌부(법, 행정, 경영, 회계학과)에 한하여 학과별 입학정원의 50%로 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육상, 축구, 핸드볼, 탁구, 골프, 수영 등 6개 종목에 한해 수능성적 2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얻은 자를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특차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가중치 적용은 우리대학 실정상 시기상조라는 판단아래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들과 관련 정창호교무처장은 "앞으로 신입생 선발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맡게되는 상황에서 우수신입생유치를 위해 서둘러 실시하게 됐다"며 "시험의 채점·관리의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대학별고사를 시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했다.

한편 오는 95년부터 우리대학에서 대학별고사가 실시되면 교육비리·입시부정에 따른 신뢰성여부, 부정적인 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계열별	내신 성적	수능 성적	대학별 실기고사	면접	인·적성 검사	계(%)
일반 (인문·자연)	40	30	30			100
예체능계열	40	30	30			100
사범계열	40	25	25	5	5	100

본사 22대 주간에 양경주 교수 취임



본사 22대 주간에 양경주(영어영문학과)교수가 지난 5월9일자 임명됐다.

오는 96년 5월8일까지 2년간 보직을 맡게 되는 양교수의 주요약력은 다음과 같다.

△49년 제주생 △72년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88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마침 △79년 제주대학교 전임강사 △81년

질적학력 여부 등의 문제가 우려되지만 대학자율권확보, 고교교육과정정상화, 우수학생선발 등의 긍정적인 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영문학과장 △84년 인문대학 학생과장 △86년 영자신문사 주간 △90년 출판부장 △92년 교수 △92년 교과과정위원회 및 평의원회 위원 △94년 영어영문학과장 및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주임교수.

한편 양교수는 영자신문사 및 교육방송국 주간도 겸하게 된다.

백기완씨 초청강연 19일 한라터에서

진보적 삶을 실현하는 학생모임(의장 고유기 동경대 4)에서는 오는 5월19일 오후4시 한라터에서 백기완씨를 초청하여 강연을 갖는다.

'5월정신 계승과 대학인의 삶'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숨비소리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Bonn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양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등 마련키로

우리대학과 독일 Bonn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이 지난 5월4일 체결됨에 따라 대학국제화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우리대학에서는 지난 4일 총장실에서 총장 및 독어독문학과 교수들 비롯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Bonn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서에 서명을 했다.

이날 조인식은 송성희(독어독문학과 학과장)부교수의 서명에 이어 양우진(영어영문학과 교수) 외 국어교육관장, 김영화(국어국문학과 교수) 인문대학장, 고장권 총장의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Bonn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은 우편물을 이용해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대학에서는 한국어 협정서에 Bonn대학에서는 독일어 협정서에 2부씩 각기 서명을 하고 상대 대학에 1부씩을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획연구실에 따르면 Bonn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은 지난 91년 8월에 우리대학측에서 Bonn대학을 방문하고 92년 2월초순경에 Bonn대학과 어학연구소장인 켈츠교수가 우리대학교를 방문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92년부터 93년까지 독어독문학과에서 2회에 걸쳐 Bonn대학을 방문해 우리 대학의 뜻을 전하고 서신교환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고 △94년 3월 기획실에서 구체적인 협정내용 및 문안을 작성한 후 △94년 4월 학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지난 5월3일 독일어·한국어 협정서의 문안을 확정함으로써 5월4일 체결된 것이라고 한다.

Bonn대학과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어학교재 개발과 교육방법에 관한 공동연구

△교수와 학생의 연구학습자료 수집 상호협조 △기타 다른 분야의 학술교류 촉진 등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양 대학의 상호협약에 이관되게 된다.

이번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머지않아 독어독문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들이 한 학기를 Bonn대학에 등록해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교환학생프로그램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환학생프로그램의 비용은 학비가 정액 면제 왕복료와 기숙사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우리 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서는 Bonn대학과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인 93학년도부터

Bonn대학의 어학연구소와 공동주최로 매학기 방학마다 독일어 집중강좌를 개설해 실시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Bonn대학은 1777년 쾰른시의 대주교가 설립, 1786년 종합대학으로 승격, 1934년 Academy of Agriculture로 통합됐으며, 현재 8개의 단과대학에 학생수는 약3만8천5백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대학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으로는 일본의 도호쿠대학, 나가사키대학, 류큐대학과 미국의 네브라스카 링컨대학 등 2개국 5개 대학이다.

社 告

제14회 백록문학상 현상공모

- 분야 : 시 : 5편 이상
- 단편소설 : 70매 내외
- 문학평론 : 50매 내외

- 응모마감 : 1994년 5월20일
- 제출처 : 본사 편집국(☎ 54-2278, 2279)
(동기우편인 경우에는 '백록문학상작품'임을 명기함)
- 상금 : 시=40만원
단편소설, 문학평론=작 50만원
- 응모자격 : 우리 대학교 재학생
- 당선작 발표 : 『제대신문』개교기념 특집호에 발표

제대신문사

돌하르방

「한타가」유행하기 전에 민심 수습에 나서야

760년(신라 경덕왕 19년) 사월 초하룻날, 해가 돌이 한개밖에 나타나 없어지지 않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경덕왕은 승려인 월명사를 불러들여 「도술가」를 지어

부르니 이 변화가 없어졌다한다.

해는 군주를 상징하므로 해가 돌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마·왕위에 대한 도전이 생겼다는 뜻일 것이다. 경덕왕은 이 위기를 해결하는데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대응책까지 마련해야 했다. 즉 왕가 「도술가」는 해가 돌이 나타난 변화를 물리치면서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 5년후 경덕왕은 또한 총담사에게 「인민가」를 짓게 했다. 이는

오악·삼산의 신들이 이따금 궁전의 뜰에 나타나고 이밖에 여러 형태로 천재지변이 나타나자 이것은 상서로운 조짐이 아니라 위기의 예고라 해 삼월 삼진날을 택해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하려던 중 총담사가 나타나 그에게 이 「인민가」를 지어 화를 막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왕당파, 반왕당파로 양분된 신라권력층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라의 위기를 예감하고 제작된 것으로 군·신·민(君·臣·民)의 상호관계와 각자가 지켜야 할 본분을 밝히고 경제적 위기 등의 난국타개를 위한 방책을 이 노래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고려시대 예종은 자신의 허물과 시정(時政)의 득실을 듣고 싶어 언로(言路)를 열어 놓았으나, 혹시 신하들이 말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바론말 해줄 것을 유도하려고 「유구곡」을 지어 불렀다고 한다.

이외에도 심상치않은 천재지변을 통해 나라의 위기를 예감하고는 미리 화를 막고자 했던 일화들은 많이 전한다. 이들 모두가 나라의 평안과 국민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통치자의 정치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통령의 모습속에 서도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수입개방정책이나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농안법 시행을 두고 정부가 중매인들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유보된 사태, 북한 핵정책에 우왕좌왕하는 외교행태 등등...

국민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 밖에 안되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문민정부가 독재정권과 다를 게 뭐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위지만, 이제 김대통령도 역대 왕들처럼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기위한 조치를 펴야 할 때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책을 잡아나가며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아예 등을 돌리고 희망을 잃은 채 「한타가」를 부르기 전에 말이다. (善)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한해에 한주일은 넥타이를 풀고 이웃 사랑을 배웁니다

물방울 무늬 넥타이에 무슨 바른머리로
「나만의 일과 여유」를 소리높여 주장했던 내가
부장님, 과장님, 동료들과 함께 진정 기쁜 마음으로
모래기를 한다.
마디 굵은 농부의 빠른 손놀림을 따라하며,
땀방울이 전해주는 행복한 피로를 몸으로 직접 느낀다.
모래기후 탁주 한 사발을 권하는 아내의
구수한 눈길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참으로 놀라운 나의 변화다.

—현대건설 기획실 신충균 사원(93년 입사)—

現代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산재단 : 무료진료사업 ●현대건설 : 농촌 일손 돕기
●현대건설 : 꽃동네 마을 만들기 ●현대중공업 : 경로잔치
●현대자동차서비스 : 불우청소년 돕기
●인천제철 : 정박사 보호소 위문, 농촌부락 자매결연맺기 등



社說

취업대책 시급하다

인간의 행복이 성취욕구의 충족에 있다면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는 것은 개인적 불행은 넘어선 국가적 손실이다. 특히 성취욕구가 가장 왕성한 20대의 고학력 대졸자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좌절하고 방황하는 것은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중앙일간지의 보도를 보면 대기업 입사시험 경쟁률이 50대1까지 된다 하니 대학입시만이 아니라 취업 역시 전쟁지옥이라 할 만하다. 고학력 취업난에 대한 문제는 그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무계획적인 대졸자 양산의 문제외에도 사회 전반적인 구조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올해 우리 대학졸업자의 순수 취업률이 43%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취업률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일 것이다.

그 첫째 원인은 정부의 지방대 육성에 대한 인식부족 뿐만 아니라 지방대 출신에 대한 차별 및 지원대책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우리 대학의 학생취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모자란다는 점이다. 셋째는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안이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전의지가 모자란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제주도도 많은 공기업과 대기업이 몰려 있기 때문에 타도시로 진출해야 하는 데도 그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도 간과할 수가 없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위에 제기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첫째, 정부차원의 지방대 육성을 강화하고 지방대 출신자에 대한 불리한 조건을 없애거나 공무원을 대기업 취업에 일정 비율을 지방대 출신자를 선발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둘째, 대학당국은 취업 준비와 지도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학은 타대학에 비해 취업상담 공간과 인원이 아직도 모자란 형편에 있다. 더구나 제주도의 위치상 타대학보다 취업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 적어도 타 대학에 준하는 수준의 취업상담공간과 인원이 필요하며 또한 효율적 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 취업담당교직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대학이 매일경제스카우트 정보망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신속하고 풍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셈이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제공할 수 있는 취업정보를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전교직원들의 정부·기업에 대한 로비활동도 효과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취업에 대한 정보와 설명회 등에 관심을 갖고 취업시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타도시 진출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과감한 도전과 도전도 젊은이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다. 특히 대기업 진출에만 신경을 쓰지 아니라 유망한 중소기업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필요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은 국제화의 시대이다. 눈을 세계로 돌려 전세계가 우리의 활동 무대임을 생각하고 외국어 실력향상에 힘을 기울이며, 전공과목에 대한 효율적인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일하는 즐거움은 개인의 행복 차원을 넘어선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의 대책은 현실에 처한 우리들에게는 답답할 정도로 더디기만하다. 우선 우리 학교와 학생들은 취업전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5월 학사 일정

- △2일~7일: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개 발표
- △9일~14일: 박사학위 청구논문 2차 공개 발표
- △20일: 제1학기 수업주수 2/3년
- △24일~27일: 아라대동제
- △27일: 개교 42주년 기념일

지성과 이기주의

지성인들이 의식개혁에 솔선수범해야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과제 중에는 국민의 의식개혁을 주장하는 지식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정치·행정 부정부패 척결 문제, 언론이나 기업 혹은 종교나 교육 등 모든 단체의 사회적 책임 문제, 교통문제나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법적 측면에 의한 대응보다도 중요한 것이 의식개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혁되어야 할 의식중에서 어떠한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것을 이기주의의 대안으로, 이 이기주의가 지성인들 사이에 더욱 만연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지성이란 자신의 객관화를 의미

하는데 교육철학으로서의 지성지상주의의 추구과정에서 지성의 축적을 이기주의의 축적화로 변질시켜 사회적 객관성을 망각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방후 오늘날까지의 한국의 교육은 개인주의와 지성지상주의에 의해서 일관되어 왔고, 얼마전에 국민학생들에게 국어·영어·수학의 과목을 허용한다고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개인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진전되면서 소속된 사회집단에 대한 애착과 집단간의 경쟁을 배제시켜 버렸다. 이러한 개인간의 경쟁은 개인의 인간성이나 사회적 윤리성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고 하였고, 러셀(Bertrand Russell)이 지적하는



조문부

것처럼 '산업주의와 집단적 기업'의 시대에 '조화'시킬 수 있는 도구적 인간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했다. 결국 이기주의에 의한 지식의 추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기주의는 강화되고 강한 이기주의는 배타성을 띠게 되어 개인을 희생시키거나 사회의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것

이다. 어떤 지성인은 개인의 강한 이기주의가 개인을 성취시키고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웨버(Max Weber)는 영리욕과 금욕적 에토스를 구별하여 영리욕은 일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이해갈등과 충돌로 인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파멸로 이끈다고 하고, 금욕적 에토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윤리라고 하였다. 그래서 개인의 강한 이기주의와 산업사회의 도구적 인간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원리는 산업사회의 순조로운 사회적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전세기 구미 산업사회에 적합한 단계적 발전론의 원리로서 오늘날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 가고 있

다는 것을 부인할 자는 없다. 지성인은 그 사회구성원의 핵심요 의식개혁의 선구자이자 마지막 보루이다. 지성인을 지성이라 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와의 관계에서 자기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지성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성의 힘은 타인의 이익이나 사회의 공익을 해치지 않도록 자기의 이익을 자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성인은 성인들이 자기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원하고 요구하는 길을 열어주는 선구자적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배타적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고 사회의 공익을 위한 의식으로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지성인부터 솔선수범하여 그 의식을 개혁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과 교수·행정대학원장)

특자의소리

『독자의 소리』는 학내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격려의 목소리를 담은 독자 참여공간입니다. 늘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분량: 3~4매)

『도서관지위』에 할 말 있다

책만 치운다고 자리독점 사라지나 물품보관소 마련문제부터 나서길

요 근래에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휘두르고 있는 한 자치기구가 있어 이름을 쓴다.

그게 중간고사 전주시 4월 셋째 주에 일어난 일이다. 일군의 무리들이 야밤을 틈타 도서관을 기습, 학우들의 생명이랄 수 있는 책들을 코뿔치기 길가에 버리듯이 도서관 한쪽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불쌍한 양들이 오들오들 떨게 '다음부터 독점하면 안돼...'라는 자보를 남겨두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날따라 비는 억수같이 내리는 데 비를 접한 학우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도서관을 향해 종종 걸음을 옮기었다. 그후로 많은 학우들이 동지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 초봄 추위에 난방없이도 웅크렸던 열망실은 여름이 다 된 지금 찬 바람만 휘회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우리 8천 아라학우의 학습권을 쥐고 있는 큰손은 바로 '대의원회 도서관 자치위원회'이다. 이 자치기구는 4월 어느날 지하매점 가는 길 밖에 '당한 회원'을 모집한다'고 일리후 며칠이 지나자 출몰식을 치르고 나서 이 때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그러자 5월4일자 제대신문에는

『자치위원회 도서관 이용질서 변경 있다』는 제하의 기사가 실리고, 자치위에서는 실문지를 돌리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나는 감히 몇마디 문고자 한다.

첫째, 학우들이 대의원회에서 생각한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폭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대의원회칙 어디로 보아도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도서관을 관리하는 도서관장님 이하 행정요원들은 '허수아비'만인가?

둘째, 제주도 개발 특별법도 국민의견을 무시 몇몇 공무원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반발이 심해 도민 공청회등 요사이까지 정당성을 얻느라 분주한데, 대의원회에서 이를 분반이 공권력 행사를 먼저 한 후에 이제야 설문조사를 실시하니 민주주의의 집행절차도 모르는가?

셋째, 좌석독점의 근본원인은 파악하고 있는가? 근래에 들어 취업문이 좁아지고 어려워짐에 따라 책하나만 달랑 들고 와서 공부하는 때는 지났다고 본다. 경상대나 공과대 인문대 법정대등 그밖의 많

은 단대학우들을 보라 하루에 봐야 할 책이 가방 하나로 채워지는지. 나 또한 좌석독점은 사라져야 할 관행으로 본다. 그러나 그 타개책으로써 책이나 그 가방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장소확보를 한 후에 동의를 구해도 늦지 않았으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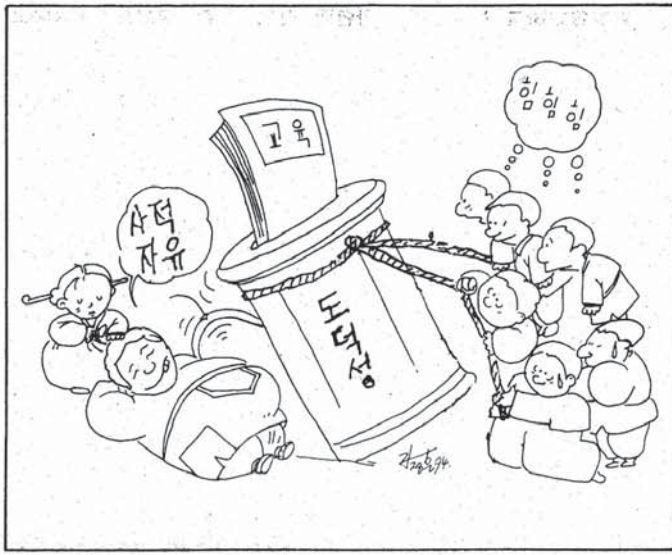
내 주장을 요약한다. 좌석독점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또한 이에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그 해결에 뛰어드는 모습에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꼭 그랬어야만 했는가?

(박진식 사교3)

대동제등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언제나 그렇듯이 오월의 캠퍼스는 푸르름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얼마 안 있어 단과대학마다 체육대회가 열리고 우리 학교 축제인 대동제가 열려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것이다.

消大漫評



원고모집

- △교수·학생논문: 20매 내외
 - △독자의 소리: 3~4매
 - △시론(時論): 15매 내외
 - △공개질서: 3~4매 내외
 - △기타: 시·수필·풍토·만화·만평·사진
-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다양한 기능 신속한 서비스 편리한 이용

온라인 종합통장 하나로 다양한 금융거래

전국 모든 우체국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도서벽지까지 송·수금이 편리합니다.

경조환

축하금등 각종 경조금을
인사장과 함께 시간에 맞추어
전달해 드립니다.



현금카드

우체국 현금카드는
송금료가 없습니다.



제주대학교 우체국장 이석훈

TEL : 56-0204, 55-0205 (구내) 2385

서평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김용옥 『삼국통일과 한국통일』

우리는 정말 통일을 바라고 있는가

최근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이북 동포들의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중국국경을 넘어 탈출한 일가족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러한 사태가 그리 심상치 않게 여겨지는 독일의 갑작스런 통일이 동독 주민들의 계속적인 탈출사태를 바탕으로 생겨난 일이라는 점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독일처럼 갑작스런 통일이 짧은 시일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리라고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만약 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우리에게 밀어닥친다면,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대부분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면서 기존 정치권력자들에게 모든 것을 내맡긴 채 급류에 휩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통일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통일을 위한, 그리고 통일 이후의 사태에 대한 깊이 있는 준비에는 너무도 소홀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통일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의 대부분은 정치가들과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일부 재야 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이북 정권을



바라보는 차이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통일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 현실을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

올해 들어 인문·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통일에 관한 연구 작업을 묶어 구체적인 성과로 출간한 책이 두 가지가 나왔다. 하나는 백낙청의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사상사 연구소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김용옥이 엮은 『삼국통일과 한국통일』(상하권)이다. 이 두 책은 한마디로 우리의 통일 논의의 차원을 높

이고 폭을 넓히는 아주 값진 성과로 여겨진다.

백낙청은 문헌하는 이로는 드물게 몇해 전부터 '분단체제 변혁'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에 나온 책은 그동안 『창작과비평』을 통해 진보적 성향의 사회과학자들과 함께 통일 논의에 참여하면서 발표한 글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짧게 발표했던 글을 한데 모은 평론집으로, 본격적인 논문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에서 대다수 사회과학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분단체제 변혁'의 과제와 방법을 찾으려는 그의 선구적인 노력과 문제의식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평론집을 읽으면서 통

일과정에 대해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던 나로서는 크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김용옥이 엮은 『삼국통일과 한국통일』은 동양철학, 한국사, 서양 정치사상, 불교학 등을 전공하는 젊은 학자들이 모여 통일논의의 근원을 파고드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 주목하게 된다. 우리들은 정말 통일을 바라고 있는가? 통일은 그저 좋지만 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는 태도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였다. 그런만큼 이들의 질문은 상당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이들은 서문에서 "통일은 통일이며 오라는 노래를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그러한 감성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과연 왜 와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과묵지만 진지한 질문을 계속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회주의의 몰락과 서구

식 복지국가의 위기가 우리가 이상으로 추구할 만한 목표를 갖아가 버린' 지금 우리가 통일을 통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기존의 좌-우 체제 또는 이념 논쟁의 맥락에서 다룰 수 없다고 본다. 이들은 좌-우 이념의 대립이 서양 근대인식론의 한계와 오류에서 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된 사회의 설계도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구도를 넘어선 동·서문명 회통의,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포섭하는 통일 담론을 통해, 그러내려 는 매우 야심적인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삼국 통일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에 비추어 오늘의 통일 담론을 구성하려고 한다.

물론 이들의 논의가 성공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 본격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시론적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제기는 매우 신선하며, 그동안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던 통일 논의를 우리들 앞에 아주 가깝게 당겨놓고 있는 것이다.

조성윤(사회학과 부교수)



◇김산리 속칭 '장기터'에 있는 임정하의 유해. 제주목사로 부임한 후 손 입헌대가 철종 13년에 세웠다.

에 적소를 정했다. 그는 들레에 가 시울타리를 두른 그 집에서 본격적인 유배생활을 시작한다. 그의 유배가 그리 길지 않아서인지 그가 유생을 가르치거나 제자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었다는 등의 기록은 없다. 그러나 유배기간 동안 상당량의 시를 지었는데(서재집에 전한다) 이것이 지역민들을 간접적으로 교화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유배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압송되면서 주민들과 석별의 정을 아쉬워하는 감정을 읊은 시는 꽤 유명하다.

'성현의 글을 읽어 그 배운 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였는가/내 마음 으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러 보나 땅을 굽어보니 부끄럼이 없게 하 였구나/예로부터 누가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가/이결에 있는 굴 립도 백세뒤에는 그치게 되겠지.'

그는 결국 영조4년(1728) 서울로 압송돼 2년동안 옥에 갇혀있다가 영조6년 수심차례의 모친 고문과 굶주림 끝에 옥사한다. 그의 나이 44세였다.

그의 죄목은 그가 죽은지 76년 후에 씻겨졌다. 또 그 54년 후에는 그의 후손이 제주목사로 부임 유해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의 유해비는 본래 김산리 속칭 '목은터'에 있었으나 고씨 후손들이 이사하면서 현재의 '장기터'로 옮겨왔다. (옮겨온 연대는 지역 주민의 말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쯤이라고 한다.) 최근에 집들이 새로 지어지면서 이 비는 유원길재집 담벼락에 바짝 붙게 땅을 굽어보니 부끄럼이 없게 하 였구나/예로부터 누가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가/이결에 있는 굴 립도 백세뒤에는 그치게 되겠지.'

제11회 '자유문학'신인상 당선작

귀향길에

그 사연 밝혀도 될까
단 한 번만이라도
쌓이고 쌓인 세월 드러내
아버지의 무자녀 밝혀도 될까.
썩어가는 퇴비처럼 쫓기고 놀리며
마파람에 흩날리던 이름
공사판 어디서나 망치를 든 이름
다들 돌아간 5월장 저녁
부르른 손 맛대어 부비며
한라산 계곡 더듬는 애타는 사연
오늘밤 함께 밝혀도 될까.
두려워 떨며 주고받은 밀담들
조천에서 몇십 명이 암매장되고
서귀포에서 또 몇백의 얼굴이
흔적없이 지워졌다는 오랜 밀담들을
멍든 사투리로 밝혀도 될까.
돌발 지나 섬길 돌아들면
봄비 기다릴 발도 없는 아버지는
타버린 숲이 되어 엮혔는데
우리들 침묵은 언제 그치려나.
언제쯤 오랜 침묵들 잡아서 깨어
섬에서 슬게 괴는
성산포 유채꽃과 서귀포 감귤꽃
저 울부짖는 탑동 파도꽃이
우리들의 노래 부르고
문단한 아버지의 가슴속에
섬의 노래 파도치려나.
두려워 떨며 암호로 살았던 우리
섬의 많은 방랑과 유배족의 이름
이제는 애타는 사연 노래해도 될까.

김경홍등문 등단



김경홍(국문학과 85년 졸)등

문(사진)이 「귀향길에」의 4편의 시로 제11회 「자유문학」신인상 시 부문에 당선, 등단했다. 김경홍의 이번 당선시들은 4·3문제를 다룬 것으로 '제주도 정신을 담은 역사학의 시'라는 평을 받았다.

올해 한라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마지막 유산」으로 가작을 수상한 바 있는 김경홍은 현재 경상북도 중부신문 편집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비석이라며 웃어보이기도 했다. 유씨에 의하면 후손들이 간혹 음식을 장만해서 찾아오곤 한다고 했다. 비바람 때문인지 언제부턴가 삐딱해졌던 비를 5년전에 후손들이 와서 바로 세워놓기도 했다고 유씨에 의하면 그 후손들이 올 때 마다 임정하의 동생(동생인지 혹은 인척관계에 있는 후손인지는 정확치 않다)의 묘와 비를 찾는다 한다. 족보(이것도 확실치는 않다)에 제주에 임정하의 동생의 비가 있다는 기록이 있어서 찾는다는데, 매번 근처를 더듬다가는 성과없이 돌아가곤 한다는 것이다. 그와 처남-매부지간이었던 김춘택과 그는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

지는데 김춘택이 그의 후손의 묘비를 써준 일이 있고 이것이 월라봉(서귀포소재)의 것인지 김산리 속칭 '한발'소재의 것인지 정확치 않음)에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뿐이었다.

비를 뒤로하고 떠나오면서 임정하를 중심으로 그의 조부, 장인, 처남 그리고 몇대 후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혹은 목민관으로 혹은 유배인으로 제주에 머물렀던 한 가족의 자취가 그 앞에 펼쳐진 인덕계곡처럼 역사속에서 깊은 골짜기로 자리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진명희기자)

향토문화 랑방 유배인의 발자취를 따라-4 임정하

소론 제거 주장하다 감산리 유배시 창작에 주력...『서재집』남겨

'아, 이 대정현 감산촌은 곧 나의 5대손 되시는 서재(西齋)선생이 적거했던 옛터다. 선생의 성을 임(任)씨요, 이름은 장하(張夏), 자는 성능(聖能)이다. 하서인으로 서재는 그 호다. 숙종13년(1687)에 출생하고 숙종39년(1713)에 사마양시(司馬兩試)에 합격하였으며, 그 이듬해 갑오증광시문과에 급제...'(홍순만 번역)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속칭 '장기터'라 불리는 골목 중간에는 이끼가 등성등성 낀 비석이 끝나 무와 인가들 사이에 서 있다. 아니, 끝나무만 무성하던 이곳에 점차 집들이 늘어나면서 담벼락에 붙어 있게 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이 비석은 철종13년(1862)경에 임정하의 후손인 입헌대가 제주목사로 부임했을 때 조상을 기려 세워놓은 것이다.

서재 임정하. 집의(執義) 형(洞)의 아들로 한성부 주자동에서 태어난 그는 숙종39년(1713) 사마양시에 합격하고 숙종42년(1717) 가주서를 거쳐 경종1년(1721) 지평·사간원 정언 등을 지내다가 신임

사화로 관직을 삭탈 당한다. -신임사화란 숙종을 아들 왕위계승문제를 놓고 노론(영조를 후원)과 소론(경종을 후원)이 대립하다가 결국 경종이 즉위하면서 노론이 화를 당한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경종은 즉위 4년만에 세상을 떠나고 1725년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이 다시 집권하자 장영으로 기용된다. 1726년 6개조의 상소를 올려 탕평책을 반대하며 소론제거를 주장하다가 평안도 순안현에 유배되는데, 이후 1727년 소론이 집권하면서 그해 7월에 제주대정현으로 이배된다.

이배과정은 그의 저서인 『서재집』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 이배명령을 받고 순안을 출발, 평양·김천·임과 등을 거쳐 1개월여만에 전라도 영암에 도착한다. 다시 소안도를 거쳐 화북포구를 통해 8월17일 제주성내에 도착하게 된다.

그 자신이 제주에 유배된 것 자체가 제주와 깊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일가 전체가 제주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음도 주목할만 하다. 임정하의 할아버지

임홍망이 제주목사로 부임했고, 그의 장인인 김진구·처남 김춘택이 그에 앞서 이미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한 바 있었다. 할아버지 임홍망은 숙종6년(1680)에 제주에 부임, 병으로 1년5개월의 짧은 기간밖에 있지 못했지만 양정법(詳定法)을 제정하여 잡세와 노역을 줄이고 관아의 공비를 줄여 도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임으로써 도민들간에 칭송이 자자했다. 다음 기회에 이난을 통해 다루게 되겠지만 김진구·김춘택 부자도 유배기간에 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그들 중에 과거에 급제한 이들도 많았다. 그래서 제주민들에게 그의 일가에 관한 얘기들이 널리 알려져 있다.

화북포에 도착한 임정하는 주성내 홍상민(김진구·김춘택부자와 막역한 사이였다)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는데 그가 임홍망의 손자라는 것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술과 고기를 마련해 그를 융성하게 대접하기도 했다.

8월21일 제주성을 출발 적거지로 향한 그는 감산촌 고재영의 집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는 젊음이 있습니다. ②



땀 흘린 보람을 찾는 뜨거운 젊음이 있습니다.

백자의 단아한 선, 상감청자의 섬세한 문양, 무늬들...
조상들의 슬기와 숨결이 배어 있는
자랑스런 문화유산들.
아무리 세상이 편해지고 외국의 물질문명에
휩쓸려 있다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은
자랑스런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높은 긍지가 있습니다.
땀 흘려 우리의 것을 배우고 보존하려는
뜨거운 젊음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땀 흘려 우리의 긍지를 찾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마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밝은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공사